

특집 2 : 2007년 바람과 희망의 메시지 1

# 공공도서관 운영주체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는 원년이 되길 기원하며



김수현

경상북도립성공공도서관 사서  
giggs@nate.com

지난 몇 해를 회고하면 도서관 인프라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관련법과 제도는 꾸준히 재정비 되고 있다. 기적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도 부족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에 몸서리 치고 있을 무렵, 도서관에서도 작은 기적이 싹트고 있었다. 작년 154명, 금년 106명의 사서교사를 채용하게 된 것은, 그 당시 33명 채용이라는 작지만 큰 시발점이 있었고, 이는 곧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의 초석이 되었다.

또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나 둘씩 늘어나는 공공도서관은 최첨단의 디지털자료실을 발판으로 지역 문화의 메카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더불어 공공도서관의 사서직 채용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방송의 위력을 실감케 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도서관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1994년 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인고의 과정을 거쳐 「도서관법」으로 새로운 탄생을 준비했다. 이 밖에도 1981년 제정된 이후 유명무실했던 「한국도서관기준」은 2003년 대폭 개정되었으며, 「한국목록규칙 제4판」이 발행되는 등 도서관 발전을 위한 학계와 현장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작년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 대회는 우리나라 도서관계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변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 환경 및 인프라 개선과 관련 제도의 정비, 국제적인 위상 강화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의 해묵은 숙제인 운영주체의 이원화 문제는 아직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립도서관은 예외로 한다고 치더라도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는 교육청 소속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그 규모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의 공공도서관이라고 할지라도 운영주체가 다르면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 교류나 정보공유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된 운영주체를 일원화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서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원화로 인한 중복투자 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봉사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지나친 비약일까?

운영주체의 이원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풀어야 할 실타래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결실을 맺어야 할 때이다. 다행히 지금, 2007년이 이러한 난제를 풀 수 있는 적기임에 틀림없다.

2006년 10월 공표되어 2007년 4월 5일 시행 예정인 「도서관법」 제2장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도서관 관련 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 등)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고무적인 것은 위원회의 역할에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과 위원회의 지위가 대통령 소속이라는 높은 위상이다. 이는 분명 우리에게 절대 놓칠 수 없는, 아니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이다.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된 운영주체를 일원화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서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원화로 인한 중복투자 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봉사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운영주체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어느 쪽으로 통합이 되든지 간에 반대급부는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반목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할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고통이며, 오히려 모순을 극복하고 도서관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식·정보 사회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야말로 도서관이 지닌 진정한 책무일 것이다.

2007년, 도서관계는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봄소풍을 기다리는 초등학생의 설레는 마음처럼 개정된 「도서관법」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크다.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도서관의 유토피아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2007년은 공공도서관 운영체제 이원화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원년으로 반드시 기억되었으면 한다. 올해는 몇 십 년에 한번 찾아오는 황금돼지 해여서 출산러시가 예상된다고 한다. 우리의 도서관계도 공공도서관 운영주체 일원화라는 황금돼지 한 마리가 꼭 찾아왔으면 좋겠다. (KSL)



특집 2 : 2007년 바람과 희망의 메시지 2



사서교사도  
임용대박이 터지길 바랍니다



문 동 섭

대구산업정보대학도서관 사서  
moonds75@naver.com

지난 2006년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가장 부러웠던 순간을 꼽자면 2007년 영양교사를 1,700명 선발한다는 발표를 들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비교과교원인 사서교사 TO는 106명에 불과한데 그에 비해 영양교사는 엄청나게 많이 선발한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부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사서교사 임용이 2006년 154명을 제외하면 늘 부족했기 때문에 106명도 다행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서교사 역시 영양교사와 마찬가지로 1개 학교에 1명 이상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현재 전국 사서교사 배치율이 5%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106명은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제가 대학도서관에 몸담고 있지만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족한 TO로 사서교사의 꿈을 접어야 하는 후배들을 볼 때마다, 또 도서관 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만 그것을 운영할 전문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2007년에는 사서교사도 영양교사처럼 획기적으로 많이 임용되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의 인력상황도 도서관을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예산 및 제도상의 문제 또는 구조조정 등 여러가지 현실적 문제로 긍정적인 고용창출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감원 및 비정규직화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반면에 학교도서관은 고용창출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미개척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학교도서관 수는 9,397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서교사 수는 414명(2006년에 임용된 154명 미포함)에 불과합니다. 학교도서관은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사서교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전인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독서 및 논

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사서교사 배치의 좋은 명분이 될 수 있기에 희망적입니다.

만일 2007년에 사서교사가 1,700명이 임용된다면 어떨까요? 아니 매년 200명 정도라도 꾸준히 임용이 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됩니다. 사서교사를 꿈꾸는 많은 문헌정보학도들이 희망을 갖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도서관계 전체적으로는 역동성과 생동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뱃그릇’을 챙기자는 차원에서 사서교사 임용확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을 대학서열의 좀 더 상위권으로 보내고, 나아가 사회 상류층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들 역시 냉혹한 무한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살벌한 교육환경에서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자율적 학습과 사색 그리고 휴식을 보장해 주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사서교사의 전문성이 더해진다면 교과교육을 좀 더 충실하게 해 줄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독



서 및 논술지도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서교사는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사회성 발달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적 의미에서도 2007년부터는 사서교사 임용확대가 보다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꿈이 있다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제적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람과 희망만 가진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서교사 임용확대를 위해서 우리 도서관인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도서관계에 팽배해 있는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서교사 임용은 왜 지지부진할까?'라는 질문을 학교도서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여러 도서관인들에게 자주 던져봅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교원 총정원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TO를 없애버리는데', '우리는 영향력이 약해서', '단합이 안돼서' 등의 원인을 지적하지만 끝에는 꼭 '해봐야 안 된다'는 비관적 한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도서관과 도서관인들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받아 왔던 상처 때문에 생긴 패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긍정적 사고'의 힘을 말하지 않더라도 모든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

**간절히 바라는 꿈이 있다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제적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람과 희망만 가진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룬다'라고 생각하며 일을 추진해도 힘이 드는데 '해봐야 안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흔히 '될 일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서관인들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패배주의를 반드시 떨

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인들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도서관 사서로 학교도서관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주변으로부터 '학교도서관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오지랖도 넓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저는 이런 시선들이 도서관 종만 달리하면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관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서교사의 주도적 역할로 도서관 이용을 습관화한 학생들은 성장해서도 도서관을 찾게 됩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보자면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의 잠재적 이용자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관중을 초월하여 학교도서관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대학 운동권이 외치던 낡은 구호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사서교사만 임용확



대를 외치는 것보다 다른 관종의 사서, 문헌정보학과 교수, 학생이 함께 외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종과 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도서관인들이 사서교사 임용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서교사 임용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2006년은 예년에 비해 교원임용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초등교원 임용축소에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반대집회와 수업거부 운동을 펼쳤으며, 상담교사 임용축소에도 관련 학과 학생 및 관계자들이 반대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상담교사 임용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습니다. 즉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 결국에는 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도서관계에도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사서교사 TO가 '0명'으로 발표되자 전국 일선 사서교사는 물론 도서관 단체, 문헌정보학과 교수, 학생들이 서울 광화문에 집결하여 사서교사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후 다들 아시다시피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214명의 TO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도서관인들이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는 사서교사의 필요성과 배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7년 희망과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서교사 임용확대는 저뿐만 아니라 도서관계 전체가 간절히 바라는 희망입니다. 또 제가 한 이야기 역시 도서관인이란 누구나 알고 있고,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속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중한 이 지면을 통해 이야기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염원을 실현할 수 없고, 알고 있는 바를 실제적 행동으로 옮겨야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밝아 온 2007년에는 보다 많은 도서관인들이 사서교사 임용확대를 위해 온 몸과 마음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서교사도 영양교사처럼 임용 대박이 터지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2007)

특집 2 : 2007년 바람과 희망의 메세지 3

# 포지셔닝을 통한 학교도서관의 인식전환



**염광미**

남수원중학교도서관 사서  
forcor01@hanmail.net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도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근거는 역대 사서교사 임용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서교사 배치를 꺼리는 이유는 사서교사를 배치할 경우 다른 교과목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편견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도서관이 단지 분류·목록·대출·반납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보는 곳이나 공간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포지셔닝(positioning)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포지셔닝이란 마케팅(marketing)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기업의 브랜드가 소비자의 마음속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포지셔닝을 잘하여 성공을 거둔 기업으로는 세계적인 세정제 브랜드



인 'Dove'가 있다. 'Dove'는 광고에서 '더러운 남성의 손을 씻기 위한 남성용 세정제'라고 포지셔닝 할 수도 있었으나 '건조한 여성을 위한 화장비누'로 포지셔닝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또한 굴지의 자동차 브랜드인 'SAAB'는 노르웨이에서 뚜렷한 특징이 없는 자동차였으나 '겨울을 위한 자동차'로 포지셔닝을 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앞의 두 가지 경우 모두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이지만 자신들의 제품을 가장 잘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맞추어 새로운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소비 욕구를 높여 성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비자의 요구를 직시하여 적극적으로 광고마케팅을 펼친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이미지가 이용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는 미래의 학교도서관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결정적인 변인이 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은 책을 빌려주는 곳이라는 기술과

공간차원의 기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에서도 현대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고차원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의 효과를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독서를 통한 간접적 교육의 효과만을 어필해서는 그 결과가 미진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독서의 효과는 아주 느리게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나타나며 게다가 효율성의 정도가 가시적인 숫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직접적인 교육의 효과를 부각시킬 경우 여론의 힘을 얻을 수 있으며 학교도서관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될 것이다.

학교도서관에서의 직접적인 교육이란 지적 교육과 인성교육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학교도서관 활용수업과 더불어 독서지도, 논술지도, 독서치료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이미지가 이용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는 미래의 학교도서관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결정적인 변인이 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은 책을 빌려주는 곳이라는 기술과 공간차원의 기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에서도 현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고차원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의 효과를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은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니며, 독서지도 또한 많은 학교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새 입시제도와 함께 아이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논술의 부분을 공교육에서 담당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성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달적 독서치료나 자료를 제시해주고 긍정적인 반응들을 주는 반응적 독서치료 또한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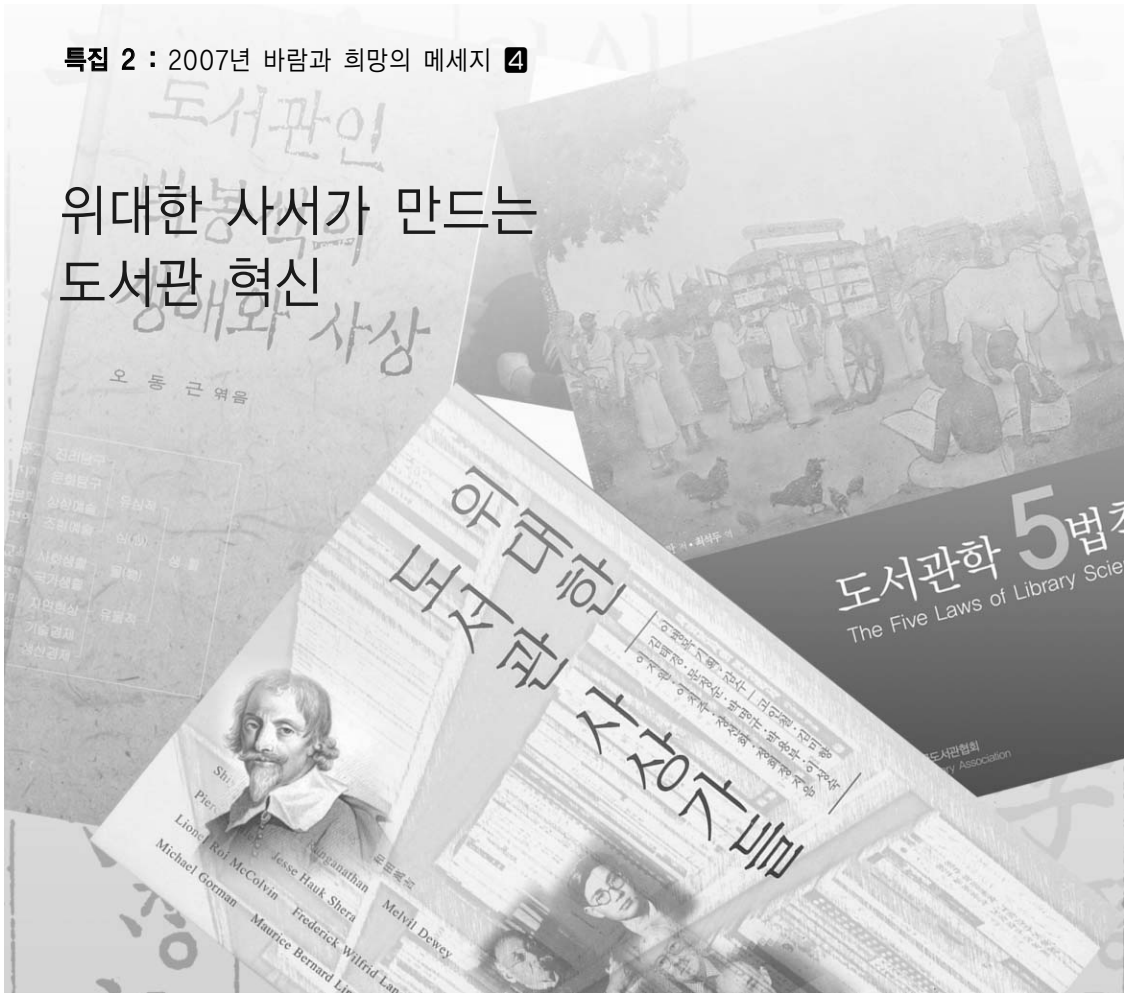
위의 기능들 모두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것들이지만 아직까지 교육청 관계자나 학교운영자들의 인식을 바꾸지는 못하였다.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사들 모두 학교도서관은 대출과 반납을 하여 주는 곳이라는 8·90년대 패러다임에 물들어 있다.

물론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이 지금까지는 정식 사서교사에 의해 운영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크지만, 이제는 사서교사의 자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현장과 각종 매체들을 통하여 새로운 포지셔닝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직에 있는 사서교사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곳곳에서 사서교사 지역모임 등을 통하여 학교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더 확대되어 2007년에는 학교도서관에 새로운 바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

특집 2 : 2007년 바람과 희망의 메세지 4

# 위대한 사서가 만드는 도서관 혁신



이정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3학년  
iblueguy@naver.com

이번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강의도 있었지만, 도서관과 사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강의도 있었다. 도서관, 그곳은 세상을 움직이는 곳이다. 좋은 책은 영혼의 피를 돌게 하고, 도서관만 있으면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도서관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곳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위대한 사서없이 존재하는 위대한 도서관은 없다”는 말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바로 문헌정보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가브리엘 노데처럼... 내가 생각한 도서관 혁신 방안은 바로 이런 위대한 사서들을 만드는 것이다. 도서관의 혁신에 있어 여러 방법이 있다. 직접적인 이용자서비스 개선, 주제화 도서관 등 많은 방법이 있다. 이것은 직접적이기에 빠른 시간 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

지만 나는 진정으로 도서관의 혁신을 위한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주저 없이 사서들의 혁신을 통해 사서들이 만드는 위대한 도서관이야말로 도서관의 가장 큰 혁신이 아닐까 싶다.

위대한 사서를 만드는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인식에서 사서는 그저 아저씨, 아줌마가 아닌 전문직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지식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를 보여주는 도서관, 그런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인 사서들에 대한 인식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런 전문직이 아닐까? 그 이유는 보통의 사람들은 사서의 업무가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힘든 일인지 모른다. 아니 아는 게 이상하고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 잘못된 사서와 문헌정보학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그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된 것은 사서의 인식전환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우리 스스로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이다.

위대한 사서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이상적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변화에 참여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쟁취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 정책결정권자들이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도서관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우리가 이용자의 편의와 도서관의 제 기능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변화를 외치면서 참여해야 관련된 단체에서도 우리를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정책결정권자들도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예전 많은 선배들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사회참여를 통해 도서관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사서가 책을 단순히 빌려주거나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인이라면 사서들도 많은 사회참여를 필요로 한다. 물론 필자가 말하는 참여는 시위현장에서 각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답게 펜으로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대항하는 것이다. 사서라는 이름을 내걸고 신문에 글을 투고하거나, 우리와 관련된 여러 시사토론 프로그램 등에 참석해 사서들의 입장과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스타사서'이다. 매스미디어 사회에서 '스타'가 가지는 대중적 영향력은 실상 어마어마하다. 그렇기에 매스미디어의 생리를 잘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스타사서'가 탄생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도서관이 얼마나 이용자들에게 편리한지를 알려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많은 문제에 있어 사서를 대변하는 해결사로서 그 역할이 무궁무진 할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사서는 더 좋은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맞이해야 한다. 질 좋은 서비스는 사서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기에 소홀히 한다면 사서의 자질이 없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했던 사서의 인식전환, 사회참여, 이용자 서비스 개선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서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서협회'가 될 것이다. 물론 정말 발로 뛰어다니면서 사서의 인식변환과 도서관의 변화를 위해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서 전체 숫자에 비하면 많지 않은 것 같다. 1990년대 시도했던 '전국사서협회'의 예에서 보듯이 사서들의 모임



은 아직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사협회, 변호사협회등 이러한 협회처럼 사서협회가 사서들의 권익증진과 조직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로서의 제 기능을 못한다면 이것은 사서들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인은 약해도 조직은 강한 것처럼 사서협회가 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그러한 주장들이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다면 우리는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들을 좀 더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도서관법」이 개정된 시점이고 사회가 급변하게 바뀌고 있는 시기이기에 사서들의 참여가 엄청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바꾸겠지’,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10년후의 후배들, 20년후의 후배들처럼 앞으로

우리의 뒤를 따라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문헌정보학을 먼저 공부하고 사회에 진출한 선배로서 사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도서관 변화기에 최적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배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사서를 무시한다고 절망하기 전에 자신은 사람들에게 사서의 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자신의

신념으로 무언가 해야 한다. 이제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직접 뛰어나면서 이용자와 그리고 사서를 위한 그날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일이라 직접하지 못할 것 같다면 사서들의 조직을 만들고 가입해서 이러한 실천가들을 지지하라. 나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전국의 모든 사서들의 지지를 받은 실천가들은 당신이 하기 힘든 여러 일들을 대행해 줄 것이다. 그리고 사서협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사서가 단순히 책을 정리하는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 이상적인 도서관을 만들고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며 미래를 여는 지식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사서들이 만드는 가장 큰 혁신이 될 것이다. (☺)